

그림은 하나도 없고 글만 있는 것도 있고, 그림과 글이 판판인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화연: 그림책도 보면 안에 들어가는 재질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선생님이 그리신 걸 갖고 오셨는데 불어로 돼있어서 이해는 못했지만 투명한 종이하고 반투명한 종이하고, 전 장에 보면 거울한테 말 걸고 있고 다음 장으로 넘기면 거울에 있는 내가 보이고, 되게 독특했어요.

#### 보통은 전형적인 동화책만 떠올리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도 다양한 매개체도 살펴본건가?

소연: 그림을 그릴 때도 종이 재질이 되게 많잖아요. 한지부터 시작해서 일반 A4용지도 있고 수채화 할 때 쓰는 오돌토돌한 종지도 있고, 그냥 그 날 끌리는대로 반투명한 거, 기름종이에 그릴 때도 있고, “이거는 물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쓰겠냐”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 소재 자체로 느낌을 줄 때도 있으니까.

#### 이야기를 듣다보니 드로잉 수업 같기도 한데,

소연: 맞아요. 그런데 ‘나의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주제가 달랐으니까. 처음에 나를 물건으로 표현하기가 있었는데, 그 때까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나를 물건에 어떻게 비유를 하는 거지?’ 싶었어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는 하는데 전혀 예상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릴 수 있나?’ 싶어서 못 그리는 것도 있고 나를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결국 그리긴 했는데 그걸 그리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종이만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화연: 저는 그림을 워낙 못 그려요. 심지어 낙서가 하고 싶으면 2차,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요. 그릴 줄을 몰라서 되게 기하학적으로만 낙서를 했었거든요. 첫 날, 자신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표현수단은 글이어도 되고 그림이어도 된다고 하길래 전 그냥 글을 썼어요. 그런데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으니까 다음부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구요. 마지막 날엔 스펀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연: 전 면봉으로 수채화를 그렸어요. 도구가 진짜 많았어요. 뒤 돌아보면 롤러도 있고 스펀지, 면봉도 있고, 기본적인 물감도 종류가 되게 많았고.

화연: 종이 사이즈도 다양해서 마지막 날엔 이 책상 두 배 만한 종이에다가 크게 그렸어요.

#### 수업 외에도 예술이 삶과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소연: 저는 하고싶은게 제과사라서 어제도 쿠키 만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만들었을 때 이런 맛이 나게 할거야’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쿠키를 만들 때 모양을 잡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잖아요. 무언가를 떠올리고 만들어내는 행위가 좋은거예요. 그런데 그림 그리거나 글 쓰기도 좋아하니까 이것들이 요리랑 합해지면 파티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책 수업을 선택한 거예요.

#### 수업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쉬웠던 점은 없었는지?

소연: 첫 날에 나를 물건으로 비유하라고 했는데, 만질 수 있는 물건

에 비유하라고 해서 질문을 했어요.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 걸로 나를 빗대어도 되나요?” 했더니, 물건으로 할 수 있으면 꼭 물건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수업이었는데, 갑자기 물건이라고 제한을 두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펼치던 게 똑똑하고 막혀버린 거죠.

화연: 그림을 그릴 때 되게 많은 단계를 거쳐요. 대화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걸 깨닫거나 영감을 받는데 제약이 있더라구요.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 그림책 수업은 마무리 행사가 아직인데, 어떻게 끝맺고 싶은가?

화연: 저희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니까 수업에 대한 느낌을 수다 떨듯이 공유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가 만든 그림책을 넘기면서 스토리를 읽어도 좋고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소연: 주제가 ‘나의 잃어버린 것’이어서 수업 자체에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지만, 그림책 작업은 못 했으니까 따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걸 가지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10을 가져갔을 때 애들이 그 10을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3정도 전달하자. 제가 생각하기에 수업  
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체험 그리고 ‘나’라는 인간을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진 우리를 스치는 순간

기록자 최동인

양정여고\_학교안예술학교\_사진반

강사 최동인

“ 마음먹은 대로 찍을수 있는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 어떤 상황,어떤 사람의 모습이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카메라를 들고 그 무언가를 찍습니다. 찰칵~...찰칵~..

한 컷이여도 좋고, 여러 컷이여도 상관 없습니다 ”

양정여고,학교안 예술학교 사진반 첫 번째 시간에 참여 학생들과 함께 ‘카메라 없이 사진찍기’를 했습니다. 손에 익숙한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속으로, 자기가 사진으로 찍고 있는 세계로 들어 갔습니다. 사진을 찍는 그 순간속에 빠져 듭니다.

극장안 영화를 틀어 주는 불빛을,할머니댁에 살고 있는 소의 눈을,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하늘에 떠있는 달과 구름을, 아침 가족들의 밥을 준비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파란 하늘과 구름을, 겨울 나뭇가지를, 하늘에 떠 있는 열기구의 모습을, 해질녘 하늘을, 집에서 이쁘게 자고 있는 강아지를, 오후 창으로 이쁜 빛이 비추는 곳 의자에 앉아 있는 친구의 모습을, 계단과 계단이 겹쳐져 있는 모습을..

열한명의 학생들이 상상하고 찍은 사진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찍은 사진의 분위기는 정말 놀랍고 멋진 사진들 이였습니다.

사진반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 학교의 밤’ ‘ 반짝 반짝 불빛 놀이 1.2’ 학교에 내가 있다’ ’ 나 그리고 나- 스튜디오 촬영’을 컨셉으로 사진찍기를 해 나갔습니다. 학교와 밤이란 제한된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라 아쉽긴 했지만 스쳐 지나가던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고 발견해 나가는 것과 학교에서 자기의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는 컨셉만 던져주고 참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진 찍기...

잘찍은 사진 못찍은 사진은 없기 때문에 평가는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가 되고,내가 보고 사랑하는 것들의 기록하고, 나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며, 그리고 각자의 이유로 사진 찍기

양정여고 학교안 예술학교 사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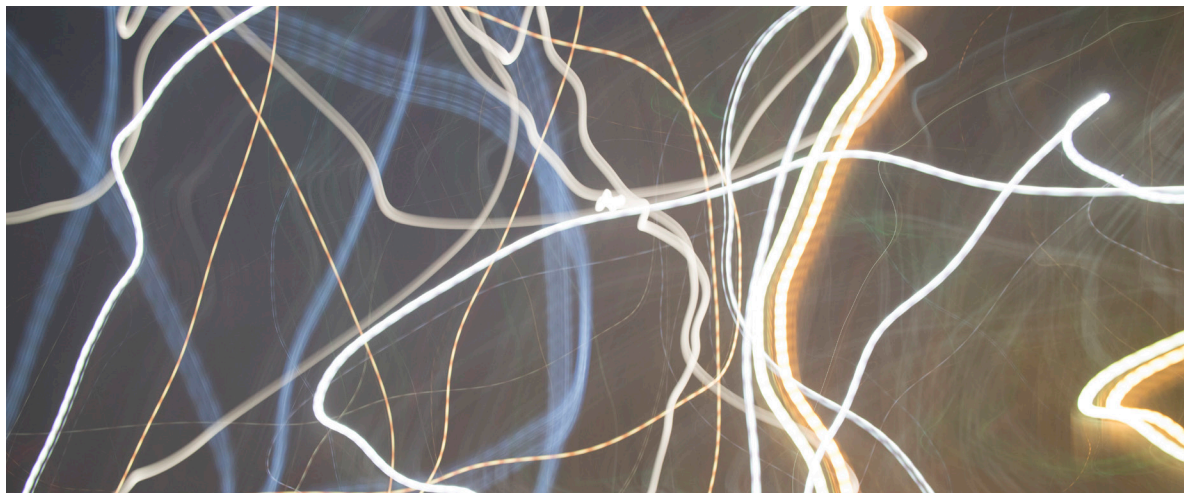
사진을 찍는 행위가 참여 학생들의 시간에 어떻게 다가 섰는지..괜찮았던 우연과 인연의 시간이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사진 / 김규연 / 2학년

저는 2학년 김규연이고, 사진반입니다. 저는 ‘빛’이랑 ‘모델’이라는 키워드를 결정했는데, 일단 사진이란 게 빛을 이용해서 찍는 거잖아요. 저희가 첫 번째 수업 때 조리개 시간을 길게 열어놓고 스마트폰으로 빛으로 그림 그리는 수업을 했어요. 그것도 여러 번 했고, 나중에 그런 거랑 관련된 수업들을 했기 때문에 빛이 기억에 남았고요. ‘모델’은 사진을 찍으려면 일단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친구를 상대로 사진도 찍어 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 정도는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원하는 걸 찍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모델을 선정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 수강신청할 때 생각했던거랑 어땠는지?

사진은 처음에 신청할 때 ‘정말 사진만 찍나?’ 이었는데, 그 때 한창 주변에 예쁜 게 많아서 (사진 찍는 모션 취하면서) “나무 너무 예쁘다!, 구름 너무 예쁘다!” 이라고 다니던 때였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신청했는데 첫 날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했잖아요. 카메라를 몇 개씩 준비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했던 말이에요. 조리개랑 셔터 속도 같은 것들, 잘 모르지만 배우면서 수업을 했는데 정말 그런 걸 조절하면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의 밝기 같은 걸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환경을 바꾸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밖에 나가서 사진 찍는 것도, 친구랑 똑같은 장면을 찍어도 ‘나는 이렇게 찍어야지, 저렇게 찍어야지’ 하다 보면 작품이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것도 되게 좋았어요.

### 본인이 촬영한걸 ‘작품’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한 것 같은데?

네 (웃음).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찍으니까 이런 촬영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비싸니까.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 ‘작품’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엄마랑 가다가 별이 보이면 엄마한테 “내가 저 별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안 나온다. 카메라를 사야 나온다.” 했는데, 엄마가 “스무 살 돼서 해.” 이라고 안 사주시더라고요.

사진 수업도 저녁에 모이면 저녁시간 촬영만 가능한데, 수업

### 시간 외 낮이나 주말에도 작업을 했는지?

항상 사진 찍었죠. 배우고 나서 노출 조절도 좀 해보고 ISO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힘들었던건 수업이 시험기간 배려 안하고 매주 있더라고요. 원래 4시부터 6시는 보충이고, 수업시간에 야자도 있으니까.

### 시간대에 제약은 있지만 다양한 실험도 많이 하는것 같은데,

네. 어두운데서 셔터 스피드를 늦춘 상태에서 스마트폰 화면 켜고 막 움직여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이 때는 깜깜해야되는데 또 운동장에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아휴 정말. 핸드폰에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보여주며) 잘 안 된 것도 많아요. 사람 얼굴을 저랑 다른 친구랑 반쪽씩 했던건데, 무섭죠? 토끼랑 강아지, 이런 것도 만들고, 사람이 손 잡은 것도 있고. 별거별거 다 그랬어요. 상상하는 대로.



기록 10.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애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 영상 나만이 바라보는 것

기록자 최재원



## 학교 안 예술학교에 대한 단상

### 학생들

학생들은 이미 예술가들이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어떤면에서 이 수업은 그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학생들마다 다를 뿐 아니라 그 방식들은 그들만의 고유성을 지닌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상매체, 그리고 그것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 듯 하다. 그것은 기술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리라.



자기소개 |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포스트잇에 기록해보기 2016

테크닉

여기서 테크닉은 중요하지 않다. 느끼고 표현하면 그만이다.  
그러려면 그럴만한 분위기와 환경이 필요하다.  
결국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학생들이 영상을 만들기에 가장 효과적인 장비는 무엇일까?  
다루기 어렵지 않으면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장비는 무엇일까?  
장비의 선택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테크닉은 중요하지 않다.  
테크닉은 외부로부터 습득 가능하지만  
내가 느끼는 바는 오직 나의 내부로부터 나온다.

만들새는 다소 어설픈지라도 만든이가 느껴지는 작업.  
그런 작업들에서 무한한 감동을 받는다.



수업 중 학생들 작업 모습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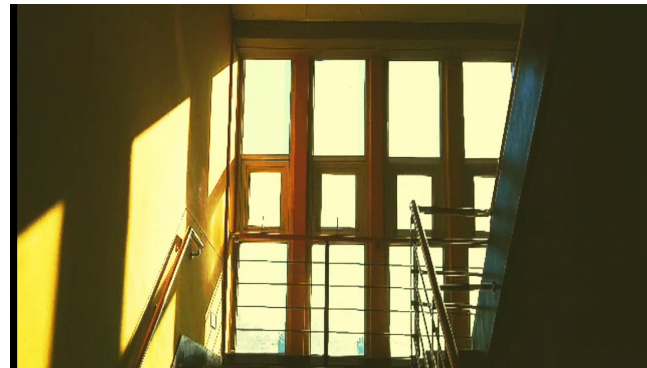


##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을 만나면 한 주간 잘 지냈냐는 인사와 함께 저녁을 먹었는지 묻곤 한다. 그렇게 한 주 만의 만남이 시작된다.

수업 내용과 방향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 하나의 변할 수 없는 내용은 '이야기하기'이다.  
'이야기하기'의 목적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햇빛이 필요하다. 저녁 시간만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해가 떠있는 시간, 대상은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다.



학생들 영상작품 중에서 캡처 2016



영상반 상영회 학교에서(좌) 학교 밖에서(우)

이 수업에는 정답이 없다. 무엇을 해도 좋다.  
그렇기에 자신감을 갖길, 그저 한바탕 놀고 가길.





시선에 대하여

가끔 학생들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고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한다.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나만이 바라보는 것이다.



동일한 대상(계단)을 바라보고 표현하기. 학생들 사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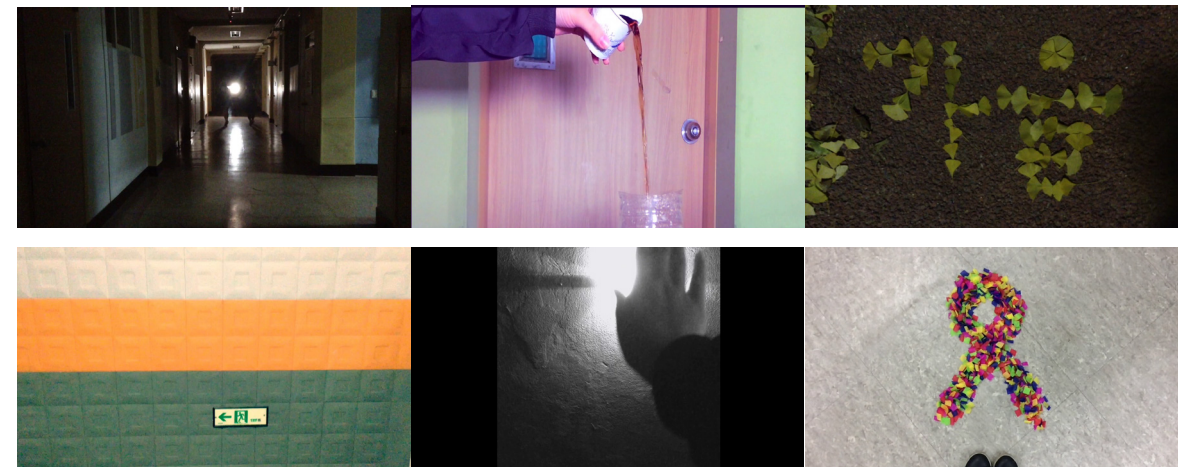
##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학생들이 각자의, 그리고 서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길 바랬고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예를 들면 '최근 나의 관심사는?'과 같은 사소한 질문을 던지는 식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잠깐씩이라도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만약 수업의 결과물이 존재한다면 그건 각각의 '나'일 것이다.

결국엔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 수업이 '나'를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



학생들 영상작품 중에서 캡처 2016

## 영상 / 조은서 / 1학년

저는 1학년 1반 조은서고요. 1학기는 드로잉+미디어아트 수업을 듣고, 2학기 때는 영상을 했어요. 영상 수업을 얘기하자면, ‘창의성’이 돋보이는 수업 같았어요. 그리고 영상은 작품 하나를 만들어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작품’이라고 했어요. 회차마다 주제가 없었는데도, 애들이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 1 학기에는 드로잉+미디어아트를 했는데, 그 수업은?

되게 자유분방한 느낌. 주제 중에 운동장에서 누워서 그리는 게 있었거든요. 종이를 운동장에 깔고 운동장에 누웠을 때 보이는 걸 그리는 거예요. 하늘밖에 없긴 하지만. 한참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지나가시면서 “너네 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때 자유롭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던 또 다른 장면이 있다면?

좀 뜬금 없는데 처음에 체육관에서 다같이 노는걸로 시작했어요.

### 벽화를 그린 최초의 인류? 라스코 동굴?

네. 맞아요. 처음에 드로잉 선생님이 오셔서 예술학교를 소개하고 무대 뒤쪽 공간에 흰 종이를 붙인 다음에 “우리는 원시인이다. 원시인은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하면서 벽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있었어요. 저는 운동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들어오는데 이태경 선생님이 원시인 구역에서 (제스처를 하면서) 막 이려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뭐하시냐”고 했더니, “원시인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던 게 기억이 나요.

### 영상 수업에서는?

하루에 영상을 하나씩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것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였는데, 수업시간이 7시에서 9시잖아요. 그래서 어두우니까 저는 학교 건물 지하로 내려가서 공포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교실 안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모두 밖에 나가서 iPad로

사진 찍고, 돌아와서 iMovie로 편집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 완성된 거 보고, 이런식으로 수업했어요.

### 다른 친구들이 찾아갔을 때 ‘조용히 하라’고 했다던데,

다른 수업 애들이 왔을 때 저희가 음악을 넣는 중이었거든요. 영상을 찍은 다음에 얹힐 음악을 녹음 중이라서 “쉿” 이랬던 것 같아요.

### 수강신청할 때 생각했던 영상 수업이과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상상하던 거하고는 비슷했는데, 영상 수업 전이랑 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드로잉+미디어아트 신청할 때도 그랬지만 그림 그릴 때는 되게 잘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영상도 ‘잘 만들어야지, 영상이 의미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업하면서 그게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꼭 잘 만들지 않아도 되고, 꼭 의미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 말랑창작학교에서 느낀 것들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원래 예고를 가려고 했었어요. 양정여고 오기 전에 예고 말고 미대를 가야겠다 싶었는데, 저는 역으로 예술학교를 하고나서 미대에 가려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저는 미술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말랑창작학교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게 ‘왜 예술을 그런 방식으로만 해야 되지?’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대를 안 가기로 했어요. 저는 말랑창작학교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했거든요. 그때 컬러테라피 선

생님을 만나서 여쭙봤어요. “제가 미술 쪽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쭙봤는데, 꼭 그런 방식으로 미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미대를 가서 미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박물관 전시 기획자가 꿈이거든요. 꼭 박물관 전시 말고 미술관 전시를 하면 그게 또 예술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미대에 진학하지 않고도 제가 좋아하는 예술을 할 수 있다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아쉬운 점이나,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영상인데 매번 밤에 모이니까 어두워서 실내밖에 못 찍는거예요. 하루는 하늘이 너무 짙고 싶은데 찍을 하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TV에서 하늘을 틀고 찍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잘 모르는거. 2학기 시작할 때 수강신청 인원이 부족해서 수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끌어오겠다고 하고 8명 데려왔어요. 작곡에 3명, 재즈에 2명, 미디어아트에 2명, 영상에 1명.

### 어떻게 소개하고 설득했는지?

“이거 지금 아니면 못 한다”고 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기타 기술을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인데  
처음 만난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쌓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곡  
**나에게서 출발하는 노래**

기록자 김영준



# 나에게서 출발하는 노래

김영준(1인조인디밴드 ‘하늘소년’)

## 1주차 | 나와 작곡이 만나는 시간

- 하늘소년의 노래/소개
  - 어떻게 노래를 만들게 되었나?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 참가자들 소개
- 작곡에 대한 수다
  - 작곡이란 무엇인가? 왜 작곡을 하는가?
  -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한 문장의 이야기
  -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생각하는 노래, 내가 만들고 싶은 노래
- 3화음의 마법 (주요 3화음 작곡) : 전형적인 패턴을 알아야 독창적인 곡도 쓸 수 있다.

- 3화음 작곡의 좋은 예제곡 – “콩나물국만 먹는 이유”  
1인가구 청년이 옥탑방에서 콩나물국만 끓여먹고 지낸 사연  
뮤직비디오: <https://youtu.be/ewXedSIX5uQ>

- \* 모티브(MOTIVE)란?  
음악에서, 악곡을 구성하는 선율이나 리듬의 최소단위, 동기(2마디)  
음악을 창출해 내는 상상력

- \* 초심자를 위한 작곡 가이드  
① C key로 ② 박자는 4/4 ③ 5도 이상의 큰 도약은 가능한 피할 것  
④ 시작과 끝의 코드는 I 도로 ⑤ 첫 마디는 가급적 I 도 화음 구성음(도,미,솔)을 중심으로  
(화성음은 많게, 비화성음은 적게)

- 32초 작곡 실습  
① 코드 넣기(8마디) (예: C-F-C-G)  
② 모티브(멜로디) 만들기(1마디 또는 2마디)  
③ 모티브 모방/발전시키기  
모티브를 그대로 복사하고, 해당 코드의 구성음과 가장 가까운 음으로 바꿈  
→ 이때 음표들을 일정한 규칙(패턴)으로 만들고, 주고받는 멜로디(질문/대답)로 배열한다.  
④ 후렴(chorus)부 만들기(①~③의 과정으로) – 이때 앞에서 만든 파트(8마디)와 연관성 있게

\* 리듬예제

♩ ♩ 1 ♩ ♩ ♩ 1 ♩ ♩ ♩ 1 ♩ ♩ ♩ ♩

2주차 | 공공연한 코드진행의 비밀 (많이 쓰이는 코드 진행)

- 머니코드의 예제곡 - “You & I”(박봄)
- 장조(Major)
- 중요 코드 : I IV V (C, F, G)

\* 많이 쓰이는 코드 진행

① I - IV - V (C-F-G), (Ⅱ min-V-I) (Dm-G-C)

② I - IV (C-F)

③ I - Ⅱ min-Ⅲ min-IV (C-Dm-Em-F)

④ I -Ⅵmin-Ⅱ min-V (C-Am-Dm-G)

90년대 가요에 많이 쓰였던 코드진행

⑤ I - V -Ⅵmin-IV (C-G-Am-F) : 머니코드

(이 코드진행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⑥ 베이스 순차진행 (C-G/B-Am-G-F-C/E-Dm-G-C)

\* 작곡실습

① 모티브(멜로디+코드) 만들기(2마디)

② 많이 쓰이는 코드진행 선택(8마디)

③ 모티브(2마디)를 8마디 전체에 그대로 붙여넣기

④ 어울리지 않는 멜로디만 코드에 맞춰 수정하기

⑤ 후렴(chorus)부 만들기(①~④의 과정으로)

이때 앞에서 만든 파트(8마디)와 연관성 있게

\* 응용

한 번은 1-6-2-5로, 한 번은 1-5-6-4로

한 번은 1마디 모티브로, 한 번은 2마디 모티브로

\* 콜라보 작곡 - 3화음 작곡과 많이 쓰이는 코드진행을 섞어 작곡. 각각 8마디씩.

3주차 | 작곡보다 가사가 더 어렵구나! (가사는 어떻게 붙일까?)

\*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들

- ① ‘일상’과 연결짓기 | 삶과 괴리는 추상적인 가사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 ② ‘스토리’가 있는 가사 | 사람들은 이야기가 시작되면 귀를 쫓긋 세우고 듣는다.
- ③ ‘반전’이 있는 내용 | 평범해 보이는 내용처럼 보였으나 후반부 반전으로 감동은 배가 된다.
- ④ ‘라임’ 넣기 | 시나 노래의 기본. 착착 붙는 라임으로 쉽게 불려지고 오래 기억된다.
- ⑤ ‘말장난(word play)’ | 라임처럼 재미있는 효과를 준다.  
조금 무거운 내용도 덜 무겁게 느끼게 된다.
- ⑥ 거시적 목표/미시적 접근 | 일상(삶)의 한 단면을 잘 관찰하면 세상의 이치를 발견할 수 있다.
- ⑦ 단어 찾기 | 정서적으로 핵심이 되는 단어, 멜로디와 어울리는 발음이 가능한 단어 찾기
- ⑧ 불필요한 단어나 문장 없애기.
- ⑨ 계몽적 가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 특정 목적이 있는 노래일수록.
- ⑩ 의성어나 의태어 사용 | “쿨룩쿨룩” “엇금엇금” 등을 사용하면 재미있는 효과가 난다.

4주차 | 작곡은 리듬을 타고 (리듬 붙이기, 장르 활용)

- ① (8 beat) Rock – 오 필승 코리아(윤도현 밴드) → 1주차
- ② (Shuffle) Blues – 타잔(윤도현 밴드) → 2주차
- ③ Rock & roll – 여행을 떠나요(조용필)
- ④ Country – 봄봄봄(로이킴) → 3주차
- ⑤ Funk, Soul – Shake it(커먼그라운드)
- ⑥ Punk – 넌 내게 반했어(크라잉넛)
- ⑦ Slow rock – 사랑해 당신을(라나에로스포)
- ⑧ Reggae – 찹쌀떡(센치한 하하) → 4주차
- ⑨ Trot – 네 박자(송대관)
- ⑩ Bossanova – 춘천가는 기차(김현철)
- ⑪ Modern Rock – 말하는대로(처진 달팽이)
- ⑫ Ballad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⑬ 기타 – 동요, Ska, Dance 등

→ 장르 활용은 리듬 붙이기 뿐 아니라 각 장르의 코드진행이나  
전체 뼈대를 가져와 활용 가능



5주차 | 제법 그럴듯한 노래로 완성하기 (기본 편곡)

배열, 반복 정하기 / 전주, 후주 / 리듬 변형, 장르 활용,  
코드편곡 / 가사 음절 조정 등

\* 고려할 것

다른 문학처럼 ‘기-승-전-결’을 염두에 두고 구성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뒤로 갈수록 악기배열이나 코러스 등을  
점점 쌓아가도록 한다.

[참고 자료]

**앱 활용** 내손안에톡톡 - 간단한 멜로디와 리듬, 녹음 가능. 몇 가지 악기 / chordbot - 자동반주. 코드배치와 구성, 템포, 장르선택 가능 / ireal pro(유료) - 많이 사용하는 장르패턴, 더 리얼한 사운드 / Garage band(유료) - 고퀄리티의 사운드, 리얼한 반주, 시퀀싱 가능, 대용량 / walkband - 건반 등 다양한 악기 / chordbot

참고서적

『적중 건반화성 평가 예상문제집(2014)』(score) - 재즈화성, 100개의 유용한 코드 진행 예제 / 『송라이터스 워십 멜로디편/하모니편』(현울음악출판사) - Berklee press / 장기호의 대중음악 작곡법『내 노래는 내가 만든다』(예술) / 『작사노트』(paper book)

## 작곡 / 장유진 / 2학년

저는 2학년 장유진입니다. 저는 작곡 수업을 들었고요. 작곡 수업의 키워드는 ‘느낌’과 ‘자유로움’입니다.

### 느낌은 어떤 느낌적 느낌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필이 충만한 건가?)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느낀 걸 작곡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저도 제가 느낀 감정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느낌’이라고 표현했어요.

### 작곡 수업은 어떻게 선택하게 됐나?

주제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주제가 되게 재미있겠다 싶어서. (포스터) 그림에 우주가 있었고,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래, 한 번 해보자’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 (영상 수업처럼) 작곡도 하루에 한 곡씩?

아니요.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매 번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려가면서.

### 그럼 최종적으로 한 곡을?

네. 팀을 나눠서 했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 모든 수업에서 팀으로 하는걸 선호하는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아쉬웠던게 원래 마지막에 버스킹을 하기로 하고 연습까지 열심히 했는데, 카톡으로 “저 무슨 일 있어서 못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

면 하는 걸로.”라고 하시긴 했는데 뭔가 취소 된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 가장 기억에 남는게 있다면?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

태경 쌤이 중국어 쌤이니까 중국어 시간에 만나서 중국어를 배워요. 그런데 수업 중에 헤림이가 저랑 얘기하다가 “저기에 누가 이상한 거 해놔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저거 내가 한 거!”라고 하셔서 너무 웃겨던게 생각나요.

기록 12.

“처음에 마음 먹은 건 ‘무조건 놀게 해주자’였어요. 캘리그래피라는 게 사실 기술적인 쪽으로 많이 수업이 되고 있고, 붓을 어떻게 잡아라... 등 사고를 제약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만큼은 이렇게 해도 너희들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 고 말했지요. 최대한 너네 하고 싶은대로 해.”

## 캘리그래피 글씨에 묻어나는 나의 감정 그리고 마음

기록자 리도원